

수능 끝난 고3생들 장애체험 해보니

“장애인 심정 조금 알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힘들게 걷는 줄 몰랐어요.” 휠체어를 타보니 계단 하나를 넘을 수 없는 답처럼 느껴지던 걸요.

지난 12일 오전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 노인·장애체험관(이하 체험관)에는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이효람(18·국제고 3)양은 허리를 구부려 주는 조끼를 입고, 발목에는 1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팔과 다리에는 관절과 근육을 둔하게 하는 억제대를 착용했다. 여기에 시력과 청력을 약화시키는 특수안경과 귀마개까지 쓰고 신발 갈아신기, 신분보기, 계단 오르기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경험했다.

이 양은 “다리로 천근 만근에 발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보여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났다”면서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와 휠체어를 체험해 본 김수현(19·

호남대 노인·장애체험관서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이해

국제고 3)양은 “잠깐의 장애체험으로 눈과 건강의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문을 연 체험관은 각종 도구와 공간을 활용해 노화와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육 공간으로 총 면적 216㎡에 3개의 ‘체험영역’, 8개의 ‘체험공간’으로 구성됐다.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상 체험 영역(현관, 거실, 주방, 안방, 욕실,침실 공간)과 노인과 장애인의 감각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감각체험 영역(시·청·촉각, 어둠 체험), 노인과 장애인 이동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 체험 공간(경사, 계단 체험)으로 꾸며졌다.



체험 준비를 착용한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오르 내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이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장애인 체험관을 안내를 맡았던 김은진(23·호남대 사회복지학과 3)씨는 “처음에는 복지가 전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노화와 장애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한혜경 교수는 “전국에서 노인체험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수도권 2개 대학(한림대, 안산대) 뿐이며, 노화와 장

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관은 호남대 ‘노인·장애인 체험관’이 유일하다”면서 “체험관이 노인과 장애인 체험교육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세대 및 사회통합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험관은 월~금요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운영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062-940-5224)나 이메일(hwtc@honam.ac.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 칼럼



박병주

우리 고장 출신 배우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악플로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 6년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두 8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또 행복한 아침독서에 1억원을 기부하고 해남 땅끝마을 어린이를 위해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으며 소아암, 백혈병 치료에 써달라고 5천500만원을 기부하고 광주시에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맡겼다.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까지 합하면 10억원이 넘는 액수다.

그런데 이같은 선행에 대해 악플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아프다. 대표적인 우익 논객이라는 지모씨는 문근영이 익명의 기부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본인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제목으로 기부행위와 가족사를 폄하하는 글을 잇따라 내놓았다.

선한 기부행위를 사상적 논리로 추론하고 지방색을 부각시키는 글들을 읽고보니 건강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기엔 전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한 투자

부는 불편을 덜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성경 잠언 11장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운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운택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구제, 곧 선한 행위에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우리는 “벌어서 남주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축재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선한 기부행위는 배운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배운자들의 마음에 깃드는 정신적인 여유로움과 영적인 상쾌함은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다.

문근영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였던 외할아버지가 통학당 사건으로 30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작은 외할아버지는 1980년 광주항쟁 때 사망했다. 슬픈 가족사를 지닌 문근영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삶의 소중한 가치로 새겼다고 한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치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

문근영과 그녀의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경기침체에 연말까지 다가오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일 수록 불우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도 안정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 목사>

체육연금 ‘장애인 차별’ 없앤다

메달리스트 연금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장애인 선수들은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김주훈)은 지난 17일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력향상연구금(체육연금)의 지급 기준을 과거 비장애인메달리스트의 80%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메달리스트들의 월정금 지급 상한액도 기존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일시 장려금 지급기준도 10점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올림픽 금메달일 경우에는 10점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경기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연구비도 장애인 지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

급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메달리스트에 대한 월정금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재산정해 11월분 월정금부터 적용하며, 일시 장려금과 경기지도자 연구비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성적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또 은퇴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외유학 지원금의 어학시험 기준을 공인된 외국어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어학성적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정했으며, 대학원 진학시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원범위도 국내 대학원의 체육 관련 전공분야에서 모든 전공분야로 확대했다.

체육공단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올 해 비장애인 선수 712명에게 연간 약 54억원, 장애인 179명에게 약 19억원 등의 총 73억원의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협뉴스

‘성 요한 수도회’ 광주 선교 반세기

원유창·정요안 수사 한국인 사제 임명

내일 임동 주교좌 성당서 기념 미사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이하 수도회)가 광주에 발을 내디딘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수도회는 이를 기념해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임동 주교좌 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5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아일랜드 선교사의 선교 여정을 담은 ‘호스피탈리티의 여정’이라는 퍼포먼스와 평화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 지난 18일에는 수도회 한국관구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사제도 나왔다. 원유창, 정요안 수사가 이날 오후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도회는 지난 1958년 11월 19일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아일랜드 관구에서 5명의 수사가 광주에 도착해 선교와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계



<원유창 신부> <정요안 신부>

시작이다. 이후 1960년에 광주 북구 임동에 성요한병원을 열고 본격적으로 의료 및 구호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05년에는 중국 연변에 호스피스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다종교 사회 갈등 해법 찾는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김영태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1시부터 전남대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에서 ‘2008 한국종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윤수 전남대 총장, 김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종교 사회에서의 갈등과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영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윤이홍 서울대 교수, 장혜선 서울신학대 교수,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

종교문화학회 학술대회

오늘 전남대 융복합문화관

해’ ‘다종교 사회와 종교의 자유’ ‘불교 입장에서 본 종교차별의 실태’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또 홍지훈 호남신학대 교수, 최혜영 전남대 교수, 정순일 원광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문의 062-530-3910. /이은미기자 emlee@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이하 모금회)가 내달 1일부터 2009년 1월 까지 ‘나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희망을 나누는 나눔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모금회는 20일 오후 무안군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공동모금회 임

원, 사회복지시설단체장과 복지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캠페인 추진대회를 가졌다.

나눔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추진대회에서 사회복지 시설단체 116곳에 15억4천 3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and movie posters.